

정상적인 성 관계를 넘어서 비정상적 욕구의 표출이 많을까 싶지만 동성애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의 세태로 항문성교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대장항문의 질환만을 담당하고 있는 진료분야의 특성 상 항문성교로 인한 여러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환자들을 종종 접하게 되며 점차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는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항문성교로 인한 증상으로 오는 경우도 경험한 바 있다.

항문성교, HIV 감염 및 성병 발생 가능성 높다

글_ 황도연 · 송도병원 외과 부장

예전엔 항문을 통한 성교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전혀 상상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환경에서 심심치 않게 그 용어를 접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환자를 만나게 되는 위치에 있게 됐다. 정상적 성 관계를 넘어서 비정상적 욕구의 표출이 많을까 싶지만 동성애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의 세태로 항문성교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대장항문의 질환만을 담당하고 있는 진료분야의 특성 상 항문성교로 인한 여러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환자들을 종종 접하게 되며 점차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는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항문성교로 인한 증상으로 오는 경우도 경험한 바 있다.

직장·항문에 상처입기 쉬워 위험

HIV가 전파되는 경로는 주로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와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로부터 전파되는 것이며 이중 성적인 접촉에 의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관계를 통해 HIV가 전파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HIV에 감염된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성 행위의 형태, 상대방의 전염성 정도, 다른 성병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 콘돔의 사용 여부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성애 특히 남성 간의 성 행위(Men Who Have Sex With

Men, MSM)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MSM 중에서도 항문성교를 받는 사람, 그리고 많은 상대와 성 관계를 맺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 이러한 형태의 성관계가 위험한 이유는 항문성교시 직장 점막의 손상에 의해 직접 감염된 분비물이 교환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과정의 성 관계에서는 전회를 통하여 여성의 질에서 분비물이 나오게 되므로 이를 통해 성 관계시에 있을 마찰을 최소화하여 질 점막의 손상을 방지하게 된다. 그러나 항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 행위에서는 아무리 전회가 충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질과는 달리 분비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 자극에 의하여 직장 점막이나 항문관의 상피가 손상될 위험성이 높고 감염인의 체액과 직접 접촉되기 때문에 HIV 감염의 전파 위험성과 다른 성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평소 동성애를 하면서 항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병원에 왔다가 검사 중 HIV 양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단 한번의 항문성교로 인해 HIV가 전파되어 감염된 경우도 비교적 흔히 보게 된다.

또한 직접적으로 항문 괄약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괄약근의 손상이 올 수 있다. 실제로 항문성교를 행하고 있는 환자를 접하게 되어 진찰을 할 때 항문수지검사를 해보면 다른 정상적인 항문과 달리 괄약근의 압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변실금의 증상을 별로 호소하지는 않지만 항문성교의 횟수가 많을수록, 최근에 행해진 경우일수록 항문암이 정상보다 약하게 느껴지게 되며 직장 전막의 손상 및 분비물 등을 쉽게 접하게 된다. 또한 이런 경우로 오는 치열은 다른 일반적인 치열과는 달리 찢어진 범위가 넓고 위치가 보통 흔히 발생하는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주위 피부가 많이 부어 있고 직장 전막에도 염증이나 분비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감별되기도 한다.

변실금을 초래할 수도 있어

따라서 항문성교로 인하여 오는 증상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물리적 자극에 의한 증상이다. 이는 성기가 항문을 통해 들어감으로 인해 항문에 자극이 되어 오는 질환으로 대개 급성 항문 통증을 호소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다. 치열이나 혈전성 외치핵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궤피가 늘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으며 직장전막이 늘어져 탈출되는 불편함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의 경우 약물치료 및 좌욕 등의 보존적 요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는 염증으로 인한 증상이다. 물리적 자극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항문에서의 분비물을 주로 호소하게 되며 질환으로는 비특이성의 직장염을 주로 들 수 있으며 흔히 크론병이나 궤양성대장염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또한 항문주위 농양이나 치루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직장염은 약물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으나 항문주위 농양처럼 이미 농이 형성된 경우라면 절개배농술을 시행해야 하며 치루의 경우에도 수술을 요하게 된다.



셋째로는 성병의 전파를 들 수 있겠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곤지름이라고 말하는 침규콘딜로마이며 이 외에도 HIV 빛 매독, 포진, 성병림프육아종이나 임질 등의 성병이 전파될 수 있다. 항문주위에 만저지는혹, 분비물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약물치료를 우선 시행하게 되나 침규콘딜로마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잘 찢어지지 않는 라텍스 콘돔 사용하도록

HIV 감염의 예방에 있어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콘돔의 종류에 있어서도 잘 찢어지지 않는 라텍스 소재의 것을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욕의 전제이다. 이는 금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욕구를 만족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HIV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감염 사실을 본인 외에 타인에게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물론 우리네 정서에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감염되지 않은 성적인 파트너를 위한 배려가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 서로 상호간의 신뢰 속에 성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뿐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도 챙겨주는 배려가 필요하겠다.